

‘동현 듀오’ 골사냥 나선다

(양동현·서동현)

양동현(울산)과 서동현(수원)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냥의 선봉에 선다.

킴 베어백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축구대표팀이 14일 자정(한국시간) UAE 아부다비 알 와다 스타디움에서 UAE와 2008 베이징올림픽 아시아지역 2차예선 조별리그 F조 2차전 원정경기를 치른다.

지난달 28일 예멘과 홈 1차전에서 졸전 끝에 겨우 1-0로 승리한 한국은 이번 UAE전에서 화려한 승리로 자신감을 되찾겠다는 각오다.

최전방 공격 라인에서는 양동현과 서동현이 투톱으로 호흡을 맞출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일본과 평가전에 이어 예멘전까지 두 경기 연속골을 넣으며 베어백의 새 황태자로 떠오른 양동현은 지난 9일 훈련 중 오른쪽 정강이를 다쳤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이후 정상적으로 팀 훈련을 소화하며 골 감각을 조절해 왔다.

예멘전에서 레드카드를 받아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박주영(서울)의 공백은 서동현이 메운다.

베어백 감독은 12일 훈련에서 양동현과 서동현을 전방에 세운 뒤 이들에게 볼을 받으려 2선으로 내려오기 보다는 미드필더들에게 공간을 맡기고 상대 수비라인

베어백호 오늘 자정 UAE전

김승용·이승현 ‘좌우 날개’로



뒷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 기회를 만드는 플레이를 강조했다.

아부다비 도착 후 베어백 감독은 볼을 계속 소유하면서 빠른 패스 연결로 좌·우 측면으로 공격을 전환하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키며 상대의 밀집수비 공략법

을 찾고자 했다.

베어백 감독은 좌·우 측면에 스피드가 빠른 김승용(서울)과 이승현(부산)을 세우고, 중앙 미드필드에 경험이 많은 백지훈(수원)과 오창은(대구)을 배치해 공·수 조율의 임무를 맡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키이 좋은 대표팀의 살림꾼 김승용이 큰 부상은 아니지만 11일 훈련 중 오른쪽 발등을 다쳐 12일 훈련에 빠진 게 다소 걱정스럽다.

UAE의 파상 공세를 막아낼 포백 수비라인의 중앙에는 김진규와 강민수(이상 전남)가 서고, 오른쪽 풀백에 김창수(대전)가 배치될 예정이다.

다만 코칭스태프는 주장이자 만능인 중앙수비수 김진규가 11일 훈련에서 오른 발목을 다쳐 상태를 지켜보고 있다. 왼쪽 풀백에는 박희철(포항)과 예멘전 후반에 깜짝 투입됐던 대학생 김창훈(고려대), 전북의 최철순 등이 선발 출전을 놓고 경쟁 중이다. 골문은 정성룡(포항)이 지킨다.

한편 대표팀 선수들은 지난 12일 생일을 맞은 베어백 감독과 미드필더 백승민(전남)을 위해 이날 점심 시간 조촐한 생일파티를 마련해 축하하며 UAE전 승리를 선물하자고 다짐했다. /최재호기자 lion@



한국 올림픽축구대표팀이 13일 오후 아부다비 알 와다 스타디움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UAE 관전포인트

‘원정 불패’ 계속 되나

올림픽호의 첫 ‘저지 경기’에서 눈여겨볼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다.

▲올림픽 예선 ‘15년 원정 불패’=올림픽 축구대표팀은 만 23세로 출전 연령 제한이 시작된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이후 역대 예선에서 딱 한 차례 원정 경기 패배를 당했다. 1992년 1월24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카타르전 0-1 패배. 그 경기 이후 네 차례 올림픽 예선 원정 경기에서 13승2무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

▲박주영 퇴장 공백 ‘약일까, 독일까’=이번 UAE전 최대 관심은 박주영(서울)의 공백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다.

올림픽호 태극전사들은 팀의 핵심 박주영이 뛰지 못한다는 사실이 오히려 ‘결속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한다.

▲20도의 기온차를 극복하라=경기 당일 UAE 아부다비의 기온은 최고 33℃, 최저 20℃에 습도 48%로 예보됐다.

현지 시간 오후 7시 킥 오프라 25℃ 이하의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적인 플레이를 펼치기에 힘을 만큼 무더위는 아니다. 하지만 극심한 체감 온도 차이는 감안해야 한다. /박진표기자 lucky@



AG 2관왕 남현희

‘세계 최고의 검객’

여자펜싱 랭킹 1위 올라

‘땅콩 검객’ 남현희(26·서울시청·사진)가 한국 펜싱 사상 처음으로 세계랭킹 1위에 오르는 영광을 안았다.

남현희는 12일(이하 한국시간) 국제펜싱 연맹(FIE)이 발표한 여자 플뢰레 세계랭킹에서 254점으로 이안나 로우자비나(232점·러시아)를 제치고 정상에 차지했다.

남현희가 주축이 된 여자 플뢰레팀이 2005 라이프치히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직후 세계랭킹 1위에 오른 적이 있지만 개인으로서의 처음이다.

세계랭킹 3위였던 남현희는 지난 주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그랑프리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내 52점을 획득, 세계랭킹 1위로 뛰어오른 반면 5위로 28점을 얻는데 그친 로우자비나는 2위에 머물렀다.

남현희는 지난 해 1월 성형수술 파문을 일으키면서 한때 국가대표 자격이 정지되는 위기를 맞았지만 개인 자격으로 출전한 3월 상하이 월드컵과 도쿄 국제그랑프리대회를 2주 연속 제패하며 세계랭킹 20위권에 서 4위로 단숨에 도약했다.

남현희는 지난 해 12월 도하아 시안게임 여자 플뢰레 개인전과 단체전 2관왕에 오르며 한국 펜싱의 간판스타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레안드로-보비

리그 MVP 놓고

오늘 ‘한판 승부’

남자 프로배구의 ‘괴물’ 용병 레안드로 다 실바(삼성화재)와 ‘저승사자’ 보비(대한항공)가 14일 오후 7시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운명의 한판 대결을 벌인다.

삼성화재는 대한항공을 잡으면 정규리그 1위를 확정하게 된다. MVP 투표는 경기 다음 날인 15, 16일 양일 간 취재 기자단과 경기·심판감독관, 방송 중계팀 등 32명의 투표인단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그 결과는 불인된 뒤 다음 달 6일 시상식 때 발표된다.

지금까지는 누구도 MVP 향방을 장담하기 어려운 박빙의 상황.

특정 부문에서는 레안드로가 총 678점으로 보비(646점)에 32점 앞서 있다. 대한항공전에서 고공 스파이크 쇼를 펼치며 팀에 챔프전 직권 티켓을 안긴다면 MVP의 표심은 레안드로 쪽으로 기울 공산이 크다.

하지만 보비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특정 부문에서 2위로 밀렸지만 공격종합(성공률 53.27%)과 후위공격(55.65%), 오픈공격(51.39%), 서브(세트당 0.510개) 등 공격 4개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

나달 날렵한 리시브

라피엘 나달(세계 2위·스페인)이 1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디언웰스 테니스장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마스터스시리즈 퍼시픽 라이프 오픈 단식 3라운드에서 스페인의 페르난도 베르다스코의 공을 받아 넘기고 있다. /연합뉴스

“컵 대회 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프로축구 삼성 하우젠 컵 2007 대회가 14일 오후 7시 광주를 비롯한 전국 6개 경기장에서 일제히 개막한다.



정규리그에서 연속 2연패를 당한 광주상무는 14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FC서울과의 컵 대회 개막전만큼은 승리로 이끌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이번 개막전에 고창현, 남익경, 이길훈 등 신진 선수들을 투입, 침체된 팀 분위기의 반전을 노릴 계획이다.

또 중앙 수비수인 마철준과 중앙 미드필더인 한태유의 보직을 맞바꾸고, 이윤섭과 구경현을 최전방에 배치한다. 좌, 우 날개에는 몸놀림이 빠른 강용과 정광진을 내세워 수비력과 공격력의 극대화를 노리기로 했다.

하지만 2006 시즌 컵 대회 우승팀인 FC서울이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2연승을 거두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어 결코 쉽지 않은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의 막강 화력인 박주영, 정조국, 두두의 공격진과 19살의 신예 미드필더 이창용과의 중원 싸움도 중요 승부처로 꼽힌다.

한편 올 시즌 K-리그는 정규리그와 컵 대회가 동시에 진행되는데 ‘유렵식’으로 정규리그는 주말에, 컵 대회는 주중인 수요일에 펼쳐진다. 지금까지 컵 대회는 정규리그와는 별도의 기간을 정해 실시했다. 구단의 입장에서는 ‘잠시 쉬어가는 대회’의 인상이 짙었다. 컵 대회를 주중에 실시하는

것도 이같은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5월 23일까지 진행되는 컵대회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진출팀인 성남·전남을 제외한 나머지 12개팀을 2개 조로 나눠 조별리그로 치른다. A조에는 대구, 울산, 인천, 전북, 제주, 포항이 포함됐고 광주, 경남, 대전, 부산, 서울, 수원, B조에

속했다. 홈앤드어웨이의 풀리그 방식으로 팀당 10경기씩을 치러 각 조 2위팀까지 6강 플레이오프에 오른다. 승점이 같을 경우 순위는 득실차, 다득점, 다승, 승자 순으로 순위를 가리며 그레도 동률일 경우 추첨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플레이오프와 준결승, 결승은 단판승부로 진행되며 연장전까지 승부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승부차기에 들어간다. A조 2위는 전남, B조 2위는 성남과 홈에서 5월30일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여기에서 이긴 팀이 6월20일 각각 B조 1위, A조 1위와 준결승전에서 맞붙는다. 결승전은 6월27일 조별리그 성적이 앞선 팀의 홈구장에서 열린다. 우승 상금은 1억원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컵대회 개막전은 이겨야죠”

광주, 오늘 오후 7시 서울 상대 안방서 경기